

# 김남훈

# 변호사

## 민사법 암기장 특강

- 사례형 문제와 쟁점정리로 선·사·기 동시대비
- 실전답안형식으로 정리하여 사례집 학습의 효과
- 출제예상쟁점의 암기 및 답안작성방법의 체득

■ 강의일정 [민법] 2023년 3/27(월) ~ 4/7(금), **오전**, 월~금 강의, 총 10 회 9:30 ~ 1:00  
[민사소송법] 2023년 4/10(월) ~ 4/16(일), **오전**, 토요일 수업 없음, 총 6 회 9:30 ~ 1:00  
[상법] 2023년 4/17(월) ~ 4/23(일), **오전**, 토요일 수업 없음, 총 6 회 9:30 ~ 1:00

■ 교 재 [민법] Essential 민법 암기장(제8판)  
[민사소송법] Essential 민사소송법 암기장(제8판)  
[상법] Essential 상법암기장(제8판)

## ■ 압기장 적중 사례

### [2023년 제12회 변시 압기장 적중사례]

#### < 기초적 사실관계 >

甲은 2021. 1. 15.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천만 원은 2021. 3. 15. 지급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乙은 잔금지급기일 전 X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던 중 X토지에 관하여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확인하고, 甲에게 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乙은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21. 7. 1.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2022. 1. 12. 증인으로 출석한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하여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계속 중인 2022. 3. 12. 乙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丁, 戊, 己가 있다. 丁, 戊, 己는 모두 이 사건 소송을 적법하게 수계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기간 등과 관련하여 기재된 날짜가 공휴일인지는 고려하지 말 것]

#### < 추가적 사실관계 1 >

丁은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소송계속 중인 2022. 5. 11. 소를 취하하였고 丙은 이에 동의하였다.

#### < 문제 >

1. 丁의 소취하가 유효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15점)

#### < 추가적 사실관계 2 >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은 심리를 진행한 뒤 丁, 戊, 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丁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항소심은 丁만을 항소인으로 보아 소송을 진행한 다음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 < 문제 >

2.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10점)

### [민사소송법 압기장 사례 적중]

소유자인 B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甲은 소유자 명의를 乙로 되어 있어서 B를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甲의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지만 법원은 甲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을 피고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이 소송계속 중 甲은 사망하였고 甲의 상속인으로는 丁, 戊, 己가 있었다. 丁, 戊, 己는 법원에 위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적법하게 하였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丁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취하를 하겠다고 진술하였고 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 戊는 청구포기의 취지가 적힌 준비서면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 己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甲의 주장을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주장 및 상속인 丁, 戊, 己의 주장들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법원은 丁, 戊, 己의 청구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 ■

출제  
경향  
분석

- [출제경향분석]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 원고의 상속인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는 91다23486판결을 근거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암기장에 수록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입니다. 상속인이 丁·戊·己라는 점, 丁이 소취하를 하고 피고 丙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동일합니다.

수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는 점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례형에서 원고가 사망하여 수인의 상속인이 되는 사안으로 출제하면, 공동상속인들은 일반적으로 공유의 법률관계라고 생각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틀린 답안을 작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은 사례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의 진도별 모의고사와 2023년 10월의 전범위 모의고사는 최근 판례 및 암기장에 수록되지 않은 판례와 쟁점 위주로 문제를 구성합니다. 올해 상법에서 불의타 문제라고 취급된 익명조합의 쟁점도 작년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암기장에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를 추가하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 ■ ■

암기장  
교재의  
특성

- (1)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 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2) 답안에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 (3) 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